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시점 2026. 11. 11.(수) 14:00 (2026. 11. 12.(목) 조간) **배포** 2026.11.11.(수) 09:00

중앙전파관리소-경찰청 통합대응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위해 업무 협약 체결

- 중관소·경찰청 통합대응단·이통3사·관계기관 직통 회선 구축 -
- 실시간 범죄 이용 정보 공유 및 선제 대응에 앞장 -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단장 오창배, 이하 '통합대응단')이 11월 11일(수)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 양 기관이 운영하는 불법 사용 번호 중지 시스템과 통합분석대응시스템 고도화를 토대로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정확하게 신고·차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자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화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피싱하기), 대포폰 등 범죄 피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 고도화된 시스템 활용으로 신속·정확한 신고·차단 적시 대응 ▲ 범죄이용 통신수단 정보공유 ▲ 관계기관·통신사 등 직통 회선(핫라인, Hot-line) 구축 및 주기적 실무협의체 운영 ▲ 그 밖의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하는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뿐만 아니라 주요 이동통신사와 관계기관이 실무협의체에 함께 참여하여 범죄에 이용된 통신회선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 소장은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통합대응단과의 협력을 통해 통신서비스 범죄 피해를 줄여 나가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전파관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행 수단 차단에 대한 신속한 탐지·차단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 보호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 부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책임자	
		담당자	

대체불가 대한민국 내실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